

아직 낙관할 수 없는 결핵문제

황현순 ■ 보건복지부 방역과 서기관

1 서론

'98년에는 국가결핵사업 및 국립결핵병원의 운영체계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핵관리사업발전위원회」를 구성, 6월부터 8월까지 운영하여 국가결핵관리사업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국민들의 결핵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며 민간의료부문을 포함하는 결핵감시체계의 확립, 시·도 결핵관리역사의 충원 등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또한 지난 해에는 IMF경제난으로 늘어난 노숙자에 대한 결핵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한해동안 총 34회에 걸쳐 약 4,189명을 대상으로 결핵검진을 실시하여 결핵환자로 판명된 분들에게는 보건소와 의료기관에 등록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99년에는 그간의 문제점 해결에 역점을 두면서 보다 발전된 국가결핵관리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99년도 결핵관리사업 추진계획

가. 최근의 우리 나라 결핵실태
우리 나라는 1960년대초부터 결핵관리를 국가사업으로 채택하여 전국 보건소의 조직을 통하여 결핵예방, 환자발견, 등록관리 및 치료사업 등을 꾸준히 실시하여 왔다.

정부에서 '65년부터 매 5년 간격으로 실시하고 있는 전국 결핵실태조사 결과 결핵유병률이 제1차 연도인 '65년에는 우리 나라 5세이상 인구중 엑스선상 활동성폐결핵 유병률이 5.1%이었으나 제7차 연도인 1995년에 와서는 5세이상 인구중 엑스선상 활동성 폐결핵유병률이 1.0%로 낮아지고 균양성 유병률도 0.95%에서 0.22%로 감소되었다. 그러나 유병률 및 환자수에 있어 선진국 또는 우리 나라와 경제수준이 비슷한 외국과 비교해 볼 때 아직도 높은 실정에 있습니다.

나. 향후 목표

그간 결핵퇴치사업 수행에서 축적된 기술과 보건·의료기관의 확충을 바탕

으로 효과적인 결핵관리사업을 추진하여 2000년대 초에 이르러서는 결핵유병률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995년	→	2005년
1.0%		0.4%

다. 세부추진계획

(1) 면역인구 확대

결핵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의 하나는 BCG 접종에 의한 면역인구를 확대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이를 위하여 꾸준히 접종사업을 실시한 결과 29세이하 인구 대비 91.8%가 예방접종을 받았고 앞으로도 전인구의 면역화를 목표로 예방접종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99년에는 565천명을 접종목표인 원으로 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되, 특히 접종효과가 가장 큰 영유아 및 미취학

아동들에 대한 BCG 접종을 더욱 강화해 나아갈 것 입니다.

(2) 환자발견 강화

1995년에 실시한 제7차 전국결핵실태조사결과 우리 나라의 결핵유병률은 1.0%로서 5세이상 인구중 약 429천명이 결핵환자인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이중 39.7%인 170천명만이 환자로 발견되어 치료를 받고 있으며, '99년에는 60천명의 신환자 발견을 목표로 환자 동거가족 및 증상을 가진 자에 대하여 검진을 철저히 하고 주민의 자진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객담검사 및 엑스선 검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 환자등록관리의 내실화

보건소에 등록된 환자에 대한 치료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현재 균양성 초기치료 환자에게 실시중인 6개월 단기요법을 확대 실시함으로써 완치율을 향

연도별 결핵실태조사 결과

구분	연도별							비고
	1965 (1차)	1970 (2차)	1975 (3차)	1980 (4차)	1985 (5차)	1990 (6차)	1995 (7차)	
총인구(천명)	29,160	31,435	34,679	37,449	41,055	42,869	44,850	
5세이상인구(천명)	24,222	26,770	30,740	33,946	36,970	39,590	41,535	5세이상인구
유병률(%)	5.10	4.20	3.30	2.50	2.20	1.80	1.00	"
환자수(천명)	1,240	1,118	1,014	852	798	728	429	"
균양성률(%)	0.94	0.74	0.76	0.54	0.44	0.24	0.22	"
균양성자(천명)	227	197	235	186	164	95	91	9세이하인구
BCG접종률(%)	24.30	44.40	60.60	69.90	80.10	86.00	91.80	

우리 나라의 결핵문제는 낙관할 수 없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결핵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상시키며 초기치료에 실패한 환자는 즉시 재치료 관리로 전환하고 재치료 실패자 및 난치성 환자는 국립결핵병원 또는 결핵전문진료기관에서 입원 또는 진료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생활이 어려운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하여서는 민간전문진료기관에 의뢰하여 정부부담으로 진료받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 대국민 홍보·계몽 강화

정부의 강력한 결핵퇴치사업과 우수한 항결핵약제의 개발·보급에 따라 치료기간이 단축되고 환자수가 감소되자 일부 국민들은 결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결핵을 경시 또는 과소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결핵퇴치사업의 큰 저해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결핵으로 인한 연간 사망자수가 4,000여 명에 이르고 있고 10대 사인별 사망순위에서 결핵이 10위를 차지하는 등 아직도 결핵문제는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핵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대국민 홍보·계몽을 강화하여 결핵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보급시켜 국민들로 하여금 결핵퇴치사업에 자진 참여토록 유도하여 결핵관리사업의 성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5) 국립결핵병원 경영합리화

국립결핵병원의 인력, 시설, 장비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결핵환자들에게 입원치료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고 양질의 의료시혜를 제공토록 하여 결핵전문치료병원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6) 항결핵 민간단체 기능 활성화

대한결핵협회는 국가결핵관리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유일한 항결핵 민간단체입니다.

동 협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99년에는 국고지원 1,250백만원과 자체수입 14,101백만원 총액 15,360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국가결핵관리사업의 일환으로 TV, 신문, 잡지 등 대중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홍보·계몽을 전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개의 이동 엑스선 검진반을 운영,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순회 이동검진을 실시하여 활동성 폐결핵환자를 조기에 발견·퇴치하고 있습니다.

시설명	수용인원	지원금액	소재지
계	60명	125,338	
대구결핵요양원	36명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75,203	대구 남구
밀알의 집	24명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50,135	경북 고령

특히 보건소에서 의뢰하는 결핵균 검사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동료원들의 결핵균 조사능력을 위하여 보건소당 연 1회이상 순회 기술지도를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핵연구원 및 시·도지부의 10개 부설 복십자의원을 통해 연간 총 88천명에게 치료와 그 가족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하며 국제 민간항결핵단체와의 학술적 교류 및 유기적인 연구와 최신 기술의 개발도 적극 권장할 계획입니다.

국립보건원에서 생산·공급하던 BCG 백신 생산업무를 '87년 협회로 이관 조치한 후 '99년도 국내 필요량 전량인 170,000ml를 동 시설에서 생산하여 무료로 공급합니다.

(7) 결핵환자 수용시설 지원확대

무의무탁한 난치성 결핵환자들을 수용·보호하고 있는 사립 결핵환자 수용 시설에 시설운영비 및 생계비 등을 확대 지원하여 수용자에 대한 보호수준을 향상시키고, 동 수용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제공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치료에 효율을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3 결론

우리 나라의 결핵문제는 낙관할 수 없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결핵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결핵관련사업에 종사하는 우리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민들을 상대로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TV, 라디오, 일간지, 전문지, 잡지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산망을 통한 결핵감시체계가 구축되어 결핵환자관리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일차적으로는 보건소 결핵관리 전산망에 대한 감시체계를 먼저 구축하고 궁극적으로는 민간병·의원을 참여시켜 명실공히 완전한 국가결핵관리 감시체계가 구축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결핵사업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